

작품 내용

제 목	콩나물 박사의 시간
내 용	근무시간에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달가울 리 없다.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늘어나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통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아빠가 서울 갔다 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픈가 봐..” 80대 중반의 고령,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생활권이 바뀌면서 일상적 외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긴 여정의 시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였던 것 같다. 저작권 지불과 관련된 개정에 대한 통상적 안내 문자였겠지만 귀가 어두운 노인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의나 복잡한 링크 연결 보다 직접 방문이 수월했을 것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협회 근처에서 위치를 헛갈려 한참을 헤매고, 여러 번의 지하철 환승을 거쳐 돌아온 아빠의 하루는 무척이나 고되었던 모양이다. 퇴근 후, 아빠에게 물었다. “어딜 얼마나 헤매고 다닌거야?” “아니 오랜만에 갔더니 협회 근처가 다 바뀌었더라고. 1시간 쯤 협회를 못 찾아서 헤맸어..” “아빠... 이거 그냥 카톡 링크 누르면 되는건데.. 정 궁금하면 전화를 걸어 보지... 왜 그 고생을 사서해?” “시간 많은데 어때.. 운동삼아 다녀온거지..”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나는 저작권협회에서 온 친절한 문자 한통을 지독히 원망했고, 그 후, 아빠는 근육주사와 독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2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에 허리를 펼 수 있었다. 아빠는 연주인이자 편곡자다. 다만 타이틀에서 전해지는 예술가적 느낌이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생계형 악사였다. 방송국 경음악단 직원에게 음악은 직업이었고, 삶이었기에 늘 헤드폰을 끼고, 발 박자를 맞추면서 뭔가를 흥얼거리는 모습, 워크맨의 테이프 앞뒤로 감는 소리, 하얀 오션지 위에서 나는 덜 마른 매직 펜 향이 익숙할 뿐 음악으로 기억되는 특별함은 없었다. 어릴 적 “아빠는 뭐하는 사람이야?” 물으면, 엄마는 ‘콩나물 박사’ 라고 했다. 지금이야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곡 작업을 하고, 나아가 Ai가 원하는 음

악을 만들어주지만 한 음 한 음을 오롯이 본인의 감각대로 따내, 하얀 오선지 위에 재구성하는 편곡자! 아빠는 그 시대 콩나물 그리는 사람이었다. 오선지와 연필 대신 모니터와 마우스가, 장인의 귀보다는 가성비 좋은 Ai의 음악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고, 가끔 저작권협회에서 전달되는 이메일 확인을 대신해줘야 할 때마다 나는 매번 ‘저작권료 그거 얼마나 된다고..’ 툭툭대며 통명스럽게 메일 내용을 전달했다. 어찌보면 허리병은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짜증을 내며, 민원 처리를 해주는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겠다는 콩나물 박사의 마지막 투지였을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니 꾸준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느낀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통해 인정받는 수익이 때론 영앤리치의 플렉스가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벚꽃 피는 계절, 고수익 연금이 되기도 하겠지만 평생을 콩나물만 그려온 누군가에게는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기도 하다.

‘몇 푼 안 되는 저작권료’ 라고 하기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콩나물 박사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는 창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동료들과 협업해 만들어 낸 음악과 젊은 날의 열정이 공존한다.

저작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시간. 평생 콩나물을 그려온 사람에게 그것은 몇 푼의 저작권료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증명하는 이름이며, 함부로 대해서도, 탐내서도 안 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50여 년 연주인 인생에서 그나마 챙긴 40여 곡의 권리, 매달 통장 잔고를 통해 소소하게 기록될 누군가의 평생 업적. 화려하게 빛나지 않아도 콩나물 박사의 시간은 여전히 성실하게 흘러가고 있다.

귀가 어두워지고, 정신도 흐릿해진 콩나물 박사는 종종 창고에 보관된 묵묵한 종이 악보를 꺼내보곤 한다. 누렇게 변색되고 낝낝한 냄새가 묻어나는... 정형화된 음표가 아닌 창작자의 필체에 그 시간이 꺾꺾 눌러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보..

오래된 악보가 펼쳐지면 종이 위 콩나물들이 천천히 살아 움직인다. 쿵쿵쿵~ 발박자는 느려지고, 흥얼거림은 작아졌지만 한 음 한 음에 새겨진 시간은 오늘도 조용히 연주를 시작한다.

부디.. 그 연주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란다.